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

The Image of Christ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김철수 (Cheol-soo Kim)**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read *Never Let Me Go* by Kazuo Ishiguro in light of Martin Buber's philosophy of dialogue, and try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ovel. According to Buber, the true life of this world is an encounter enabled by "grace," and that encounter leads to a meeting with God, who is "eternal You." For Buber, art is not merely the result of an artist's own thinking and experience, but of the meeting between an artist and the object, "with his or her whole existence." The interpretation of a literary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Buber's philosophy requires a new and different approach. That is, instead of the positivist, formal, or socio-historical critiques of the work, which are based on the "I-It" attitude toward the text, Buber's interpretation requires the "I-You" attitude to listen to the text and hear the voice of "eternal You" through the reading process. In an era when human-centered science, technology, literary trends, and philosophy seem to prevail over the truth of the Bible, Ishiguro's novel *Never Let Me Go*, which opens up various reflections through the story of "a clone," might be an appropriate target for text interpretation as "thou." It is because the dialogue with the narratives of a clone speaker, who remembers and mourns the lives of her clone friends growing up to experience human joys and sorrows and completing their lives after their organ donation, reminds a reader of the image of Christ Jesus, who endured deadly sufferings to redeem the sin of human, and further, enables the reader to heed the silent outcry of the implied other in the world.

Key words: Kazuo Ishiguro, *Never Let Me Go*, Martin Buber, *The Text as Thou*, the Image of Christ

* 2022년 11월 14일 접수, 11월 3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9일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실시한 제39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Division of General Studies, Chosun University) 부교수,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남쪽 현관 7180-1호. charles@chosun.ac.kr

1. 들어가는 말

현대 사회는 바벨탑처럼 높아져 가는 인간의 지능과 지성, 그리고 갈수록 광대하고 담대해져 가는 인간의 실험과 경험으로 폭으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b)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인간의 삶은 예측 불가의 속도로 발전해 가는 교통과 유무선 통신의 수단들, 그리고 그러한 발전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과 무한한 발전과 진보의 가능성을 현전하고 있다. 또한 염기서열 발견과 DNA의 제작과 복제 및 다차원 프린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유전자 변형을 통한 품종의 개량이 이미 가능해졌고, 더 나아가서 손상된 장기나 신체의 조직까지도 교체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삶에 엄청난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다.¹⁾

이와 같은 과학적 개가는 결국 1990년대 후반 이래로 계속되는 동물 복제에 대한 시도로 이어지고, 그에 뒤이은 인간의 장기 복제의 가능성이 가져다준 생명 연장에 대한 꿈과 소망은 영생불사를 향한 야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인간의 야망은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명 창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넘어서,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와 병행하여 과학과 기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스포츠나 소비주의 또는 뉴에이지(New Age) 등과 같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이 종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기독교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인 “새로운 교단”(Tsao 2012: 219)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줄 것 같은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화려하고 강력한 연료를 바탕으로 꾸준히 타고르고 있는 인간의 산업기술과 문화와 문명이라는 불꽃의 이면에는 현재도 그러한 발달의 가속화와 발을 맞추어 가는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바이러스의 위력, 그리고 그 가운데서 희생되는 무력한 타자들의 소리 없는 몸짓과 아우성이 그 불꽃과 함께 피어오르는 그늘음처럼, 또는 그 화려함이 강할수록 그 이면에 더욱 짙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 속에 상존하며 우려와 공포를 자아내기도 하고, 통렬한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현대문명과 문화의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국적이나 인종, 또는 시공간과 문명,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한계나 경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계 영국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Kazuo Ishiguro 1954~)의 여섯 번째 소설인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 2005)를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

1)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

면서,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제작된 복제인간들의 행적을 다른 작품의 행간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추적해 보고, 그 이미지들이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일반인의 치료 목적을 위한 복제인간의 제작과 양육이 허용되어 시행되고 있는 “1990년대 후반 영국(England, late 1990s)”이라는 특정한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 디스토피아적 공상 과학 소설로 알려져 있다. 『타임』지(*Time*)는 이 소설을 2005년 최고의 소설로 선정했고, 그 잡지사가 설립된 해인 1923년 이후 발행된 100대 영어 소설에 포함시켰다.² 마크 로마넥(Mark Romanek) 감독이 각색하고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2010년에 개봉되었고,³ 2014년에는 유키오 니나가와(Yukio Ninagawa)의 연출을 통해 도쿄에서 연극으로 상연되었으며, 2016년에는 일본 TBS의 텔레비전 드라마(私を離さないで)⁴로 방영되어 황금시간대를 장식하기도 했다(김남주 2021: 67-68). 이 작품이 가진 지속적인 강력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시구로는 201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분법적 경계를 넘나들며 둘 사이의 차이를 지우고 그 위상과 위계에 대한 전복을 도모해 온 이시구로의 작품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더욱더 분명해진 ‘탈중심’과 ‘탈권위,’ 그리고 그러한 전복과 파괴를 기반으로 그 세력을 키워가는 절대적 개인주의의 확산과 강화라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소위 ‘포스트모던 예술’의 극치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철저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서술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면서도 그러한 기억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일인칭 화자의 서술을 통해 경험과 기억, 그리고 실제와 가상의 전도를 작품 곳곳에서 시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읽고 있는 작품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두 가지의 특성으로 범주화할 수 없는 이시구로의 작품들은 발표될 때마다 엄청난 관심의 중심이 되어 다각적인 비평을 받아왔다. 특히 본 연구의 소재가 되는 『나를 보내지 마』는 “다양한 모험을 통해 상실, 불확실성, 그리고 ‘간병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발달을 도모해 가는 주인공 캐시(Cathy)의 성장소설”(Levy 2011: 2)이나 “심리 발달을 위한 우화”(Britzman 2006: 307)로 읽혀지고 있다. 존 프리먼(John Freeman)은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에게 삶과 죽음에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Freeman 2008: 197).

그런가 하면, 복제인간의 문제가 곧 인간의 문제임을 전제로 하여, 이 작품이 “‘복제’라는 모티브를 통해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양종근 2020: 193)는 주장이 제기되었

2)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3)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4)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으며, 작품 속의 주요 모티브인 ‘상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억의 스토리텔링”(조성란 2020: 131)이라는 내러티브의 특성이 연구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권력과 타인에 의해 관리·통제”(박경서 2018: 45)되고 있는 복제인간들의 삶을 ‘생명권력’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문학적 인권 담론”(박경서 2018: 47)으로서의 작품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티파니 차오(Tiffany Tsao)는 이 소설을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과 존 밀튼(John Milton)의 『실낙원』(Paradise Lost), 그리고 생명공학의 문제와 연계하면서 신학적 요소를 부각시킨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독교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과 자신들의 창조자인 인간의 생명 연장이라는 복제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을 때라도 삶이 의미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Tsao 2012: 230)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 작품 속에서 작가인 이시구로가 추구하는 특정한 목적이 없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삶과 예술과 기술의 필요를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1990년대 후반이라는 오래된 과거를 가상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실제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인간 복제와 관련된 사건을 전개해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 작품은 가해자인 인간이 아니라 피해자인 복제인간을 서술자로 전면으로 내세워 “여전히 살아남은 복제인간들의 정체성, 용서, 그리고 기억의 확인이라는 주제”(Teo 2014: 153)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의구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분노와 비애감, 때로는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1996년 7월 5일에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Roslin Institute)의 이언 윌머트(Ian Wilmut) 교수와 노팅엄 대학(the University of Nottingham)의 케이스 캠벨(Keith Campbell) 교수의 연구팀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Dolly)가 태어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시구로는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생명체의 복제에 대한 소식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손으로 이룬 과학적 개화에 대한 우화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함의를 품은 채 전개되는 작품의 내용을 부버와 ‘대화철학’에 기대어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새로운 타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II. 부버의 대화적 미학과 그리스도의 이미지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865)는 이 세계의 참된 삶은 “은혜”(Buber 1996: 62)로 이루어지는 참된 만남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오직 ‘자신의 온 존재를 기울여

야' 가능하게 되는 '나-너'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참된 만남을 통해 "영원한 너"(eternal You)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고 설파한다(Buber 1996: 57).

못 관계의 연장선은 영원한 '너' 안에서 서로 만난다.

모든 낱말의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다. 낱말의 '너'를 통하여 저 근원어는 영원한 '너'에게 말을 건다. 모든 존재에 깃들어 있는 이 '너'의 중개에 의하여 모든 낱말의 존재자에 대한 관계는 실현되기도 하고 또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모든 낱말의 관계에 있어서 실현되지만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성되지는 않는다. 태어난 대로의 '너'는 오로지 본질적으로 '그것'이 될 수 없는 저 '너'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만 완성되는 것이다.(Buber 1996: 123)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너'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너'를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부버에게 예술은 예술가의 일방적인 사고와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술의 대상이 되는 "한 형태"의 요구와 그에 대한 예술가의 "온 존재를 기울인" 반응으로부터 솟아나게 된 결과이다(Buber 1996: 60). 그리고 모든 예술이 "대화적 본성"(Buber 2002: 30)을 갖고 있다는 부버의 주장을 근거로 관객이나 독자나 비평가들 역시 그와 유사한 대화적 태도로 그 예술작품 앞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의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작품의 해석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즉 작가의 생애나 기법을 중심으로 한 실증주의나 형식주의 또는 신비평, 그리고 특정 시대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이 모두 그 텍스트에 대하여 '나-그것'의 태도로 접근한 방식이었다면, 부버의 대화적 미학에 기반한 해석은 텍스트에 귀를 기울이며 그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발견되는 "모든 '너'"를 통해서 "영원한 '너'"(Buber 1996: 57)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나-너'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과 문예사조와 철학이 성경의 진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소위 '포스트모던' 혹은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과학 발달의 결정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복제인간'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한 성찰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너'로서의 텍스트 해석을 위한 적절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하여,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성장한 후, 서너 차례에 걸친 장기 적출의 결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복제인간들의 삶은, 마치 구약성경 「레위기」(Leviticus)의 번제 양이나 소처럼, '욕심에 의해서 잉태된

죄와 그 죄가 장성한 결과'(약 1:15)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로부터 그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함께 복제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가 친구들을 자신들의 원본 인간인 “근원자”(possible)⁵를 위한 희생자로 보내고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자신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을 피력하는 복제인간 화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대화적 독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찢기고 상하신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의 모습을 읽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렘 5:21) 무감각한 잔인함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욕망 속에 매몰되어버린 타자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회개와 결단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수의 존재는 소위 포스트모던 세계를 능가하는 삼위일체 중 한 위로서 그의 “탁월성”(Baucham 2007: 67)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사 9:6)으로 찬양 속에 예언된 분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골 1:15) 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요 1:1)이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엡 1:22)가 되신 분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분”(행 3:14)일 뿐 아니라 “죽은 자의 재판장”(행 10:42)이요,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요 5:27)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 8:12)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능가하는 ‘탁월하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족적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확인되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역으로 재확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종류의 관계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통해, 혈연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 최초의 강림과 현현의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 내의 한 여관에 있는 말구유였다.

또한 머리 돌 곳조차 없는 인자의 모습으로(마 8:20) 고향 사람들의 배척(마 13:57)과 제자의 배신(눅 22:60)을 겪으며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 기간을 사셨던 서른셋 청년 예수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속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예견된 죽음 앞에서 그 죽음

5) Kazuo Ishiguro, *Never Let Me Go* (London: Vintage, 2005), p. 140. 이후 인용문은 이 텍스트를 이용하며, 괄호 안에 NLMG라고 표기하고 페이지 수만 기록함.

이 피해 가기를 원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이다”(눅 22:42)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의 전 생애는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다.

마치 「레위기」의 속죄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리고 상한 그의 육신으로부터 그의 영혼이 떠나갈 때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라고 외치며 인간적인 절규를 내뿜었지만, 그 절규는 곧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요 19:30)는 고백으로 마무리 된다. 하나님은 그를 처형하는 자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요 19:19)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 말로 기록”(요 19:20)하게 하심으로써,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행 4:11)을 만드시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날(Christmas)”을 정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고전 11:24-25)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전 11:26)게 하셨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은 부버의 말대로 “온 존재를 기울여”(Buber 1996: 127) 당신이 ‘너’로 여겨주신 죄인들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너’, 곧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보이시고 이루신 이러한 완전한 ‘나-너’의 관계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생명의 성령의 법”(롬 8:2)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과 동물과 사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작품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기념되고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내러티브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만남과 대화에서 일어나는 ‘나-너’관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매개체”(Kepnes 1992: 81)로 여겼던 부버의 대화적 미학이라는 프리즘은 저자의 의도나 시대적 상황 또는 작품 속의 배경 등 작품과 관련된 그 어느 부분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요소를 찾을 수 없는 이 작품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함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III. 복제인간 서사 속의 그리스도의 이미지

1. 기만과 허위의 섬 뒤에서 드러나는 이미지

“모든 ‘너’는 영원한 ‘너’를 들여다보는 틈바구니”(Buber 1996: 123)이며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로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가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신을 발견하는 것”(Buber 1996: 127)이라는 부버의 철학적 명제를 염두에 두고, 『나를 보내지 마』라는 소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은 「레위기」의 희생 제사에 사용하는 소나 양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찾아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인간의 몸으로 강림하신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자발성’이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세계관을 주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속에 있지 않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믿고 있는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유한한 육신의 생명을 무한대로 끌어 올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제작된 복제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요 1:29)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욕심과 죄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희생양이기도 한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자신을 서른한 살의 간병인이라고 소개하는 캐시(Kathy H.)라는 이름의 복제인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간병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하여 독자나 가상의 청자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2년 동안의 간병인 생활을 끝으로 자신도 오래 미루어 두었던 장기기증의 절차를 밟게 되는 캐시는 자신의 인생의 세 단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두 친구인 루스(Ruth)와 토미(Tommy)에 대한 기억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를 원한다.

내 이름은 캐시 H. 서른한 살이고 11년 이상 간병사 일을 해 왔다. 11년이라면 꽤 긴 세월처럼 들릴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내게 올해 말까지 8개월을 더 일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내 경력은 거의 12년에 이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간병사로서 그렇게 오랜 경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안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NLMG 3)

이 작품 속에는 자신들을 위해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쳐야 하는 복제인간들을 잊어버리고 부인하

고자 하는 인간 대중의 망각 서사와 그러한 자신들의 존재의 소름 끼치는 본질을 애써 기억하여 전하고자 하는 복제인간들의 집단적 기억의 서사가 공존하고 있다(Teo 2014: 78). 비록 이 작품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다”(NLMG 8)라거나 “그 일을 환상적으로 해내고 있다”(NLMG 3)라고 말하는 일인칭 화자의 다소 불안정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주관적 서사를 통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복제인간 화자인 캐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억압에 대항하는 무기이자 자유를 향한 계단”으로서의 “자전적 스토리텔링”(Levy 2011: 16)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시나 그림과 같은 예술작품을 창작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NLMG 260)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아닌 “근원자”(NLMG 140), 즉 자신들의 원본인 인간들의 육체적 영생을 위한 대속물 혹은 희생자로 살아가야 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은 두 단계의 교육을 거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헤일섬”(Hailsham)(NLMG 4)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코티지”(the Cottages)(NLMG 18)라는 이름의 다소 자율적인 교육기관에서 성장하게 된다. 헤일섬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 복제인간들은 “교사들”(guardians)(NLMG 18)이라고 불리는 어른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코티지에서는 통명스러운 노인 관리인인 케퍼스(Keffers)의 무심한 관리 속에 소위 “선임”(veteran)(NLMG 118)이라고 불리는, 다른 지역의 복제인간 교육기관에서 초등 시절을 보낸 선배들과 동거하면서 일종의 생활교육을 받게 되며, 그 사이에 절차와 순서에 따라 장기기증을 시작한다. 그중 일부는 장기기증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간병사”(carer)(NLMG 3)의 일을 떠맡기도 하는데, 그들은 동료들의 장기기증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완료”(complete)(NLMG 101)라는 단어로 완곡하게 표현되는 그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준다.

제1부에서는 헤일섬이라는 복제인간을 위한 초등교육 기관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서술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진행된다.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탄생이나 부모나 가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친구들과 함께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지역의 학교에서 생활하는 어린 복제인간들의 학창 생활이 서술자인 캐시와 그녀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루스, 그리고 그 둘과 항상 동행하는 토미라는 남학생과의 우정과 애증의 기억을 중심으로 묘사된다.

거의 매주 진행되는 “건강검진”(NLMG 13)이나 자신이 제작한 창의적인 예술작품을 출품하여 예술성과 자존감을 검증하는 “교환회”(NLMG 16), 그리고 “바깥세상에서 온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판매회”(NLMG 41) 등을 통해서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던 헤일섬의 학생들은 사실상 교사들로부터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인 “장기기증”(NLMG 29) 프로그램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그저 어떤 “목적”(NLMG 81)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만 들으며 지내게 된다. 그들의 교사들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부터 그들

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부과된 장기기증의 운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창의적인 재능과 건강한 육체를 기를 것을 강조한다. 그들의 교사들 중 한 명인 루시 선생님(Miss Lucy)은 그러한 간접적인 접근에 동의하지 않고 학교 측의 교육 방침과 대립을 하던 중 사임하게 된다.

작품의 말미에 헤일섬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던 마담과의 대화 결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헤일섬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강조했던 이유는 작품 내의 영국 사회에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대부분의 복제인간 교육 기관들이 “통탄할 만한 상황”(NLMG 261)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던 사육장의 수준이었던 반면, 헤일섬에서는 소위 창의적인 예술품을 창조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복제인간을 양육하고 있음을 홍보함으로써 “당시의 시류를 타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NLMG 261-2). 이러한 홍보활동과 헤일섬의 전성기는 실제 인간보다 “좀 더 강화된 특질을 가진 아이”(NLMG 264)를 얻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범위 이상의 실험을 했던 제임스 모닝데일(James Morningdale)의 연구로 인하여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로 실제 인간인 자신들보다 더 우수한 복제인간이 사회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을 예상하며 “겁에 질린”(NLMG 264) 사람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헤일섬의 관리 책임자이자 정기적으로 복제인간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들중에서 우수한 것들을 수집해 가던 마담 역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몸서리쳐지는 것을 애써 억누른 채,” 학생들 중 하나가 우발적으로 자기 몸에 닿을까 봐 “겁에 질려서”(NLMG 35) 공포에 가득 찬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부지중에 들리게 된다.

그 후에도 마담은 어느 날 캐시가 판매회를 통해서 구입한 주디 브리지워터(Judy Bridgewater)의 앨범인 Songs After Dark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곡인 “Never Let Me Go”라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 상황에 대하여 캐시는 불임의 선고를 받았던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고, 그녀는 혹시라도 그 아이를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가슴에 껴안고 노래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마담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바로 “그런 제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NLMG 271)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마담의 대답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는 한 복제인간 아이를 보면서 빠르게 다가오는 신세계를 본 소녀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과거의 세계를 가슴에 안고, “결코 자신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원”(NLMG 272)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루시 선생님은 청소년기를 맞게 된 복제인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래가 정해져 있지”(NLMG 81)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언젠가 현실이 될 장기기증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자신이 돌봐야 하는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함

으로써 불필요한 환상을 갖는 것을 피하게 하고자 했던 루시 선생님의 이러한 시도는 가식 없고 진실한 교육자의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에밀리 선생님은(Miss Emily) “그녀가 하려던 건 너무 ‘이론적’이었어”(NLMG 267)라고 일갈하며, 비록 자신들이 학생들을 “바보”(NLMG 268)로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한다.

“그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린 너희를 ‘바보’로 만들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 세월 동안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에게 유년을 주었어. 루시의 의도는 좋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면, 헤일섬에서 너희 행복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거야. 이제 너희를 좀 보렴! 나는 너희 둘이 무척 자랑스럽다. 너희는 우리가 준 것에 기초해서 스스로 삶을 세웠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을 거다. 너희는 수업에 몰두하지 못했을 거고, 그림과 글쓰기에도 몰입할 수 없었겠지. 각자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니? 그랬다면 너희는 그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박했을 테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설득할 수 있었겠니? 그래서 그녀는 떠나야 했단다.”(NLMG 268)

인생의 초기 단계를 지나는 어린 복제인간들이 거주하며 훈육받는 ‘헤일섬’은 일종의 ‘기만의 섬’인 셈이다. 실제로 이 학교의 이름은 ‘환호하면 맞이한다’는 뜻의 hail과 ‘거짓말’을 의미하는 ‘sham’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인들의 세계로부터 격리된 시설에 갇혀서 생활하는 이 학생들은 학교와 세상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숲에 대한 온갖 흉악한 소문을 들으며 외부 세계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숲을 둘러싼 온갖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돌았다. 우리가 헤일섬에 들어오기 얼마 전에 어떤 소년이 친구들과 크게 싸우고 헤일섬 교내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이를 후 그 숲에서 손발이 잘린 채 나무에 묶인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NLMG 50)

이 숲에 관련된 이러한 소문들은 결국 이 학생들이 장기기증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서술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일섬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시구로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세상의 현실로부터 격리시킨 채, 그 아이를 거품 속에 가두고자 하는 노력”(Grigsby 2005: 199)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즉 자신의 딸을 키우는 동안 “적절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 위한 속임수의 요소”(Wong and Crummette 2006: 218)가 사용되어야 했다고

생각했던 이시구로는 모든 헤일섬 학생들이 거품 같은 순수한 환경 속에서 외부와 현실 세계로부터 조심스럽게 보호받고,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서는 일찍 죽어야 한다는 진실을 직면할 때까지는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다섯 살 나이에 부친의 직업을 따라 모국인 일본을 떠나 외국에서 살아야 했던 이시구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반영이며, 더 나아가서 같은 운명으로 자신을 따라 살고 있던 딸의 양육 과정에서 사유하게 된 이상적인 어린 시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헤일섬에서의 추억은 작가인 이시구로가 착한 아버지로서 의도했던 ‘선의의 거짓말’을 바탕으로, 작품 속의 성인 인간이자 교육자들이 ‘보호’라는 이름으로 쳐놓은 ‘기만과 허위의 그물’과 그에 맞서는 또 다른 교육자의 ‘무력한 정직성’이라는 무딘 칼날의 대결 구도 하에서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탐색을 이어가는 복제인간 학생들의 힘겨운 삶의 여정으로 점철되어 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 밝혀지는 몇 가지 사실 속에서 독자는 희미하게나마 기독교나 그리스도 이미지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캐시의 서술 속에 등장하는 헤일섬의 첫 번째 회상 장면에서 그들의 나이는 “열두 살을 지나 열세 살이 되어가던 때”(NLMG 6)였고, 이 장면 속의 장소는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벗어나 친한 친구들끼리 있고 싶을 때 찾아가는 체육관(sports pavilion)”(NLMG 6)이었다.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부모를 따라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자신을 찾으러 온 육신의 부모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세계관을 피력하신 나이가 열두 살이었고, 그 장소는 공교육기관인 회당이였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또한 캐시가 간병인으로서 봉사한 햇수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헤일섬에는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말씀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창 2:15) 범죄 이전의 에덴동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런가 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목적, 즉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나 마음의 평화 혹은 개인적인 행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Warren 2002: 17)에 대한 의식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Lawler-Row and Elliott 2009: 51)을 미치지만, 헤일섬의 복제인간들에게 부여된,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위한 목적은 그 목적을 부여한 자나 그것을 부여받은 자에게 좌절과 분노를 제공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차오는 과학적 진보를 통하여 자신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된 인간이 “그들의 창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킴으로써”(Tsao 2012: 220) 불멸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심으로 인간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탁월한 희생을 돋보이게 한다.

2. 허무와 환멸 뒤의 이미지

캐시는 루스와 토미와 함께, 헤일섬에서의 다사다난했던 애증의 경험들에 대한 기억을 안고서, 코티지로 알려진 성인 복제인간들의 임시 주거 시설로 이사한다. 그들은 그 전에 이미 그곳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던 선임 학생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 헤일섬 출신이 아닌 그 선임들은 그곳 출신 학생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데, 크리스(Chrissie)와 로드니(Rodney)라는 한 커플은 특히 헤일섬에 관심이 있다. 시나 그림 같은 예술 활동이나 교환회나 판매회 같은 인적·물적 교류활동으로 학생들의 영육간 균형 잡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헤일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소위 ‘사육장’ 출신들에게 헤일섬 졸업자들은 “특권층”(NLMG 4)으로 여겨지며 선망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왔다.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캐시에게 헤일섬에 대한 쉽 없는 질문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유년기를 그곳에서 보낸 것처럼 헤일섬을 추억”(NLMG 5)하기도 한다.

크리스와 로드니도 그들처럼 헤일섬을 동경하는 커플인데, 그들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캐시와 토미 그리고 루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이 노퍽(Norfolk)라는 도시에서 루스의 “근원자”(NLMG 140), 즉 루스를 닮은 그녀의 원본 인간 같은 사람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다. 성인기에 이른 복제인간들이 근원자에 대하여 사유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성장 과정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근원자 이론의 이면에 있는 기본 개념은 단순한 것으로 별다른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리 각자가 일반인에게서 복제된 개체인 만큼 바깥세상에는 우리의 근원자가 살고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밖, 즉 시내나 쇼핑센터, 휴게소 같은 곳에 나가면 줄곧 신경을 곤두세워 자기나 친구들의 근원임직한 사람들, 곧 ‘근원자’를 찾아보곤 했다.(NLMG 139)

복제인간의 원본을 의미하는 ‘근원자’는 “미래의 살아있는 비전”(Currie 2009: 99)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작품 속 학생들에게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앞으로의 삶을 예측해 줄 수 있는”(NLMG 140)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캐시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근원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을 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NLMG 140)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캐시는 또한 루스의

근원자를 본 적이 있다는 그 두 사람의 말에도 회의감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그 이야기가 본능적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그들이 말하는 대상이 루스가 말하던 “장래 희망과 지나치게 맞아떨어지는 듯했기 때문”(NLMG 142)이었다. 결국 캐시의 예측대로 “칸막이를 최소한으로 줄인 아름답고 현대적인 개방형 사무실”(NLMG 144)에서 근무하고 있을 자신의 근원자를 찾아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루스의 여행은 좌절되고, 루스는 복제인간 학생들이 단지 “쓰레기”만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절규하며 극심한 비관론에 빠지게 된다(NLMG 166).

캐시의 눈에 “뭔가를 꾸미고 있는”(NLMG 142) 것처럼 보였던 그 두 사람의 ‘근원자 프로젝트를 위한 노퍼크 여행 계획’의 이면에는 사실 캐시와 두 친구에게 미친 두 번째 큰 충격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커플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 헤일섬 운영자들이 그 진위를 가려내서” “몇 년간 함께 지낸 다음 기증을 시작할 수 있게”(NLMG 153)된다는 소문이었다.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던 크리시는 “항상 누군가 엿듣고 있었던”(NLMG 152) 코티지에서는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헤일섬 출신인 세 사람을 설득해서 노퍼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고백한다.

영어로 ‘possible’로 표기되는 ‘근원자’의 정체성은 이시구로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실하게 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이시구로는 1995년 『가디언』(Guardian) 지의 마야 자기(Maya Jaggi)에게 자신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성장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없지만, 존경했던 할아버지와 기억으로 인하여 늘 자신이 일본에서 살았더라면 겪었을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말한 바가 있다(Jaggi 1995: 116). 이와 같은 작가 이시구로의 회한과 잃어버린 정체성과 소지품의 회복을 희구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의 열망이 헤일섬 시절, 당시 학생들 사이에 “전국의 분실물들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NLMG 65)으로 통용되며 “영국의 분실물 센터”(NLMG 65)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게 된 노퍼크에 집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다 실패하였지만, 캐시와 토미는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중 하나는 캐시의 잃어버린 테이프의 사본이며(NLMG 171), 다른 하나는 그동안 포기했던 토미의 그림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예술성의 회복이다. 일단 캐시의 이야기 속에 모두 세 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마담과의 대화에서 등장한 주디 브리지워터의 *Songs of Afer Dark*라는 제목의 테이프고, 거기에는 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캐시가 가장 좋아하는 “나를 버리지 마”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캐시는 마담과의 만남이 있는 지 몇 달 만에 그것을 잃어버린다. 2주 후에 친구 루스가 캐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Twenty Classic Dance Tunes”(NLMG 75)를 선물로 준다. 그 테이프는 사실 그녀가 잃어버린 테이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캐시는 그것을 “하나의 오브제”로 보관하고 있으며, 루스가 죽은 후에

“가장 귀중한 물건 중 하나”로 여기며 지낸다(NLMG 75). 그리고 세 번째 테이프는 노퍼크에서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발견하게 된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제목을 가진 테이프이다.

그러다가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줄지어 놓인 카세트테이프 케이스를 훑어보는데 손가락 아래에서 갑자기 오래전 그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것이 모습을 나타냈다. 주디, 그녀의 담배, 웨이터를 향해 애교 부리는 듯한 눈길, 그리고 배경의 흐릿한 종려나무에 이르기까지 내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테이프였다.(NLMG 171-72)

사실 이 테이프는 함께 노퍼크를 찾아온 친구 토미가 캐시에게 선물로 구해주시기로 약속했던 것이었는데, 함께 가게를 구경하던 도중 캐시가 먼저 발견하여 토미에게 알려주었고, 그는 “이제 너를 위해 이걸 사 줄 수는 있어”(NLMG 173)라고 말하며 값을 지불한다. 이 세 개의 테이프들은 마치 진보의 폭풍 앞에서 무력하게 놀란 눈으로 서 있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눈에 비친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Benjamin 1969: 257)를 닮은 캐시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무게 중심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 테이프는 이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될 만큼 이시구로가 주인공에게 큰 의미를 부여한 캐시의 최애장품이었고, 두 번째 것은 자신이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기로 다짐하는 먼저 간 친구가 준 우정의 표식였으며, 마지막 것은 자신이 좋아하던 토미와 함께 힘을 합쳐서 찾아낸 ‘잃어버린 기억’이기 때문이다.

노퍼크 여행 중에 ‘근원자’의 실체를 깨달은 루스도, “강한 성욕”(NLMG 181) 때문에 포르노 잡지를 뒤지며 자신의 “근원자임직한 얼굴을 발견한다면 적어도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NLMG 181)했던 캐시도 코티지로 돌아온 이후에는 더 이상 ‘근원자’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토미는, 마담이 장기기증 연장을 신청한 커플들이 정말로 사랑에 빠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서, 캐시에게 상상 속의 동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헤일섬 시절, 미술 시간에 “세 살짜리가 그렸음직한 코끼리”(NLMG 19)를 그렸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토미는 계속 친구들에게 심술을 부리며 따돌림을 당하다가, “그렇게 창조적으로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모든 게 아주 잘될 거라고”(NLMG 23) 말해 준 루시 선생님의 충고를 들은 후,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인 적이 있었다. 그랬던 토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노퍼크 여행 이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욕망, 즉 장기기증 연기를 통한 생명 연장의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꼭 마담한테 보여주기 위해 이 동물들을 그리는 건 아니야. 그저 좋아서 그리는 것뿐이야. 캐시. 이걸 줄곧 비밀로 해야할지 어떨지 생각 중이야.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알려진다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한나는 지금도 수채화를 그리고 있고, 많은 선임들도 뭔가를 하고 있잖아. 내 말은, 그렇다고 모든 이들에게 이걸 보여주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을 더는 비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NLMG 188)

이 장면에서 발달되어가는 토미의 그림은 헤일섬 시절처럼 마담의 눈에 들거나 친구들의 칭찬을 듣기 위한 ‘목적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캐시까지도 그 그림에 “끌려들어가게”(NLMG 188) 하는 ‘나-너’ 관계 속의 예술이다. 즉 그 그림은 부버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술가의 혼의 소산으로 작품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예술가]의 혼에 다가와서 그의 작용하는 힘을 요구하는 나타남”(Buber 1996: 60)으로서, 예술가 자신의 반응을 통하여 완성되는 “예술과 형태 사이의 ‘나-너’ 관계(Kepnes 24)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이러한 그의 태도는 동물에 대한 사랑과 그 동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에 근거한 것이며, 그 결과 그는 캐시와 함께 찾아가던 마담으로부터 장기 이식 연기에 대한 소문이 근거 없는 신화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비록 그 후에도 그림에 대한 애착을 캐시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녀가 들어오면 “그리던 것을 멈추고 치웠”(NLMG 276)지만, 예술에 대한 이러한 토미의 태도는 “실용적인 동기뿐 아니라, 예술 창작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적인 즐거움이나 혁신의 필요까지도 넘어선”(Tsao 2012: 228) 작품 자체와의 “온 존재를 기울인”(Buber 1996: 127) 대화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예술작품의 모습이다.

토미가 자신이 그간 사귀어 오던 루시가 아닌 캐시와의 사랑을 통해서 장기기증이 연기되기를 기대하며 그림을 연습하는 동안 루스와 캐시의 우정에는 점점 긴장감이 고조된다. 루스는 캐시가 토미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토미는 결코 캐시의 감정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캐시에게 끼어들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NLMG 201). 얼마 지나지 않아 캐시는 간병사 교육 신청서를 제출하고 떠난다(NLMG 202).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 교사들의 보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코티지에서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치열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성장의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 시기에 “풀숲과 오래된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한가로운 공터”(NLMG 192)로 남아 아이들의 독서와 산책과 담화의 장소로 사용되는 “그 사랑스러운 낡은 교회”(NLMG 192)의 주변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욕망을 전개한다. 소위 ‘근원자’라 불리는 자신의 원본 인간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환멸을 느낀 루시는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복제 인간”(clones)이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의 상실감을 표현한다.

이처럼 복제인간들은 자신의 미래를 확인해 볼 수도 예측해 볼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성인기를 준비하게 된다. 대개 길어야 삼십 대 초반의 나이에 ‘완료’되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은 얼마간의 간병인 생활을 거친 후에 기증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복제인간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창조자의 뜻’에 따라 삶을 지속해 간다.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삶의 현장은 공생에 직전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육체적인 욕구(마 4:3), 하나님에 대한 시험(마 4:6), 그리고 세상의 영광(마 4:8-9)에 관한 유혹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신 성경 속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영육 간의 환경을 연상하게 한다. 영원하고 진실되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반면, 그와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변덕스러운 이기주의자인 인간 근원자를 추적하는 작품 속 복제인간들은 결국 자신들이 무력하고 무익한 존재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뿐이다.

3. 폐허와 슬픔 뒤의 이미지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간병사로서의 삶을 나름대로의 성실한 방법으로 극복해 가는 캐시에게 서술의 초점이 맞춰진다(NLMG 208). 우연히 간병사 일을 하고 있는 로라(Laura)라는 이름의 헤일섬 시절 친구를 만나게 된 캐시는 그녀로부터 루스의 첫 번째 기증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과 헤일섬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NLMG 210).

헤일섬이 폐교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큰 가위를 가져와 줄을 꼬아 쥐고 있던 그 남자의 주먹 바로 위를 싹둑 잘라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면 그 풍선들 하나 하나는 더 이상 같은 무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게 된다. 나에게 헤일섬 소식을 전하면서 로저는 우리 같은 졸업생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말이 옳은지도 몰랐다. 하지만 헤일섬이 언제나처럼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북쪽 운동장에서 하급생 무리를 이끄는 제럴딘 선생님 같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 나는 맥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NLMG 213)

헤일섬의 폐교에 대한 소식은 “집과 추억과 관계를 잃는 것”(조성란 2020: 140)일 수도 있고, “자유를 찾아 날아”(이복기 2019: 163)가는 것일 수도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회한이자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한 안온한 교육기관으로, 등장인물인 복제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던 헤일섬의 물리적인 실체는 마치

장기기증이라는 임무를 마치고 나면 산산히 흩어지게 될 자신들의 육체처럼 공중분해 되고 오직 각자의 애도와 기억 속에 무형의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단절의 의미는 결국 지금까지 관계의 대상이었던 주인공 화자 캐시가 이제는 관계의 주체가 되어 이후의 삶 속에서 좀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관계의 주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의 화자인 캐시는 그동안 겪었던 친구들과의 애증의 역사 그리고 열두 해 이상의 간병인 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모든 경험을 모아서 이 소설 속 이야기의 내포 청자인 “그들의 뒤이은 세대 복제인간”(이복기 2019: 163)에게 전수해 주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캐시는 로라의 충고에 따라 루스의 간병사가 된다. 서로 좋아하던 톰을 사이에 두고 애증의 신경전을 벌이던 이전의 관계가 풀리지 않아 아직 서먹한 관계를 풀지 못한 채 루스를 간병하던 캐시는 토미가 장기기증을 위해 머무르고 있는 킹스필드(Kingsfield) 회복센터 근처에 떠밀려온 고기잡이배를 방문하고 싶다는 루시의 바람에 따라 그 배를 보러 가는 길에 토미와 재회하게 된다. 습지에 파묻혀 있는 그 배는 “이제 하늘을 배경으로 거의 흰색으로”(NLMG 224) 보이는 탈색되고 균열이 나 있는 낡은 폐선에 불과하다. 그러한 배의 모습을 본 루스는 “정말 아름답다”(NLMG 224)고 말하고, 그 습지를 보던 토미와 루스는 헤일섬을 떠올린다(NLMG 225).

“그거 참 재미있네. 어느 날 아침 헤일섬의 14호실에 가 있는 꿈을 꾸었거든. 그곳 전체가 폐쇄되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 14호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바깥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 있는 거야. 마치 커다란 호수처럼 말이야. 창가 바로 아래에는 빈 음료수 상자 같은 쓰레기가 물에 둥둥 떠 있었어. 하지만 겁이 난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 그곳은 멋지고 고요했어. 지금 이곳처럼 말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곳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위험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 루스가 말했다.(NLMG 225)

본래 여행이나 탈출의 수단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왔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배는 파손된 채로 습지에 매몰되어 탈출 불가의 마비 상태에 있는 복제인간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투영하고 있다. 실상 그 배를 타고 외부 세계로 떠나는 꿈을 꾸어야 할 것 같은 복제인간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토미처럼 이미 폐쇄된 “헤일섬이 이와 비슷하다고 해도 그렇게 고약한 건 아니”(NLMG 225)라고 생각하거나 루스와 그녀의 친구처럼 “정말 아름답다”(NLMG 224)고 생각한다. 이것은 외부와 단절된 특정한 시설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교육받고 자라온 복제인간들의 의식 속에 내재된 학습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사실상 이 배에서의 경험은 이후 이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의 계기가 되며, 특히 토미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창조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상징”(Robbinson 294)으로 사용된다.

5년간의 서투른 간병인 생활 끝에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장기기증 통보를 받은 톰과는 달리 루스는 같은 기간의 간병인 생활과 장기기증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결국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 안그래?”(NLMG 227)라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 목적에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습지에서 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루스는 토미와 캐시를 갈라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NLMG 232), 자신이 헤일섬의 마담이 사는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밝히면서 톰과 캐시에게 그녀를 찾아가 기증 연기를 요청해보라고 격려한다(NLMG 233). 이후 몇 주 동안 캐시와 루스는 그간의 앙금을 씻고 헤일섬과 코티지에 대해 평화롭게 회상하게 되고, 두 번째 장기기증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 루스는 캐시에게 토미의 간병사가 되라고 요청한다(NLMG 235).

결국 토미가 세 번째 기부를 한 후에 캐시는 그의 간병사가 되고(NLMG 237), 그들은 그의 회복 센터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NLMG 238). 더 나아가 연인으로 발전한 그들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NLMG 238-9), 확인된 두 사람의 애정을 근거로 장기기증 연기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루스가 제공한 주소로 마담의 집을 방문한다(NLMG 247). 어린 시절에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포기했던 톰은 그의 창의성과 장기기증 연기 프로그램이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절박한 심정과는 반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마담은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데, 두 사람을 “가엾은 생물들”(NLMG 254)라고 부르는 그녀의 관심사는 줄곧 다른 곳에 있다. 그 후에 옆방에서 헤일섬의 교장이었던 에밀리가 나타나(NLMG 255), 장기기증 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NLMG 258). 그녀는 헤일섬이 당시의 다른 복제인간들을 더 인도적으로 키우는데 헌신하는 진보적 운동의 일부였다고 설명한다. 마담은 복제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깥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곤 했다(NLMG 260). 한때 이 운동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여론의 변화는 결국 헤일섬을 폐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수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유전자 조작과 연관이 있는 ‘모닝데일 사건’ 이후에 실제 인간보다 더 우수한 복제인간이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간들은 복제인간을 양육하는 시설들을 폐쇄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들과 같은, 또는 자신들에게서 나온 생명체인 복제인간들을 장기공급용 부품으로 여기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왔던 당시의 유전공학적 시류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혼을 가진 복제인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혁신적인 복제인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고 자랑스러워

하는 에밀리의 숨겨진 의도는 사실 인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론화함으로써 더 많은 후원금을 받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복제인간들은 숨겨져 있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죽음이 자신들을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단번에 좌절당한 채 회복센터로 돌아가던 도중에 토미는 캐시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숲으로 걸어 들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NLMG 273). 헤일섬에서 학교 측이 복제인간 학생들에게 정직하기를 원하다가 물러났던 루시 선생님이 옳았다는 판단에 도달한 토미는 격노하여 “분노에 떨며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있다(NLMG 274). 토미는 이후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결국 네 번째 기증을 마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토미가 죽기 전 캐시는 “토미, 우리가 알아낸 이 모든 걸 루스가 모르고 죽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NLMG 284)라고 질문하면서 장기기증 후 죽음을 당한 친구에게로 대화의 초점을 맞춘다. 토미의 기억에는 자신이 좋아했던 남자 친구를 자신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캐시에게 부탁하고 자신의 몸을 열어 장기기증에 들어갔던 루스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했”(NLMG 284)다고 추억한다.

이렇게 루스와 토미가 자신을 떠난 후 캐시는 “나는 루스를 잃었고 이어 토미를 잃었지만, 그들에 대한 나의 기억만큼을 잃지 않았다”(NLMG 286)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삶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되더라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며 기념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러한 그녀의 애도는 노퍼크에 있는 들판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자신에게 임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죽어간 토미의 얼굴이 지평선에 떠오르는 것을 차마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눈물(NLMG 288)로 표현된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영국의 분실물 센터’라고 불리는 노퍼크를 다시 찾은 캐시는 멀리서 떠오르는 토미 얼굴의 환상 앞에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에 매몰되기 보다는 “차로 돌아가 가야 할 곳을 향해 출발”(NLMG 288)하게 된다. 여기서 캐시가 보여준 행동의 중요한 의미는 노퍼크에서 잃어버렸던 기억과 사람들을 되찾겠다는 환상을 뒤로 하고 단호히 떠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만을 남겨주고 떠난 죽은 친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애도하며,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투영하겠다는 그녀의 결연하고 숭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장기기증자가 되어 죽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완료’하기 전 성인 간병인으로서 캐시의 삶을 보여주는 3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고난과 죽음의 기간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복제인간들은 완전한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 자신들을 양육했던 교육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운명과 정체성이 ‘신’의 역할을 하는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고 종료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깻세마네에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42)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지워진 그 운명의 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자 하나,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그 사실을 깨달은 직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엄청난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지만(“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 27:46), 작품 속의 복제인간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그에 맞서서 저항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마치 “다 이루었다”(요 19:30)는 말씀과 함께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들의 삶을 ‘완료’한다.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캐시 역시 먼저 간 친구들에 대한 애도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자신도 같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시구로 자신은 이처럼 저항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복제인간들의 삶을, 태어나자마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삶의 양상을 표현하는 메타포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IV. 나가는 말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인간 복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 소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과학이 없다”⁶⁾는 해리슨(John M. Harrison)의 주장처럼 그 안에는 실제 과학적인 내용이나 배경의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작품 속에서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나 사회 및 정치와 관련된 실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상적인 요소들의 함의를 추적하여 그러한 요소들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반추하는 부버식의 대화적 독서가 오히려 작품의 해석이나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1990년대 후반의 세상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생명을 창조하며, 그 피조물의 단축된 수명으로 자신들을 불멸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신이 된 인간들’의 세상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교회는 놀이터나 묘지로 변해버렸고,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되던 배는 오래된 습지에 탈색되어 버려진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종교나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요소들이 극대화된 기술문명의 발달 속에 매몰되어 버린 배경 속에서, 인간의 장수나 불멸의 욕망을 위해 탄생된 복제인간들은 부당한 환경, 즉 자신들을 그저 신체 장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취급하는 환경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애처로운 존재로 묘사된다.

작품 속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 내고 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의지와는 정반대의 속성을 보여주는, 무심하고 잔인하며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그것’의 세계, 즉 ‘허위와 기만’으로 시작되어 ‘허무와 환멸’을 거쳐 ‘폐허와 슬픔’에 이르게 되는 세계이다. 그리고 그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와 전혀 다

1)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05/feb/26/bookerprize2005.bookerprize>

를 바가 없다.

반면에, 작품 속의 피조물인 복제인간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분노나 좌절 없이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비록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폐허가 된 배의 전경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하면, 자신들의 운명과 처지에 대하여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철저한 ‘나-너’의 세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이 작품은 복제인간 중 한 명을 내레이터로 설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독자들을 복제인간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하여 복제인간들의 운명에 대하여 ‘측은지심’을 갖게 하거나,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종의 ‘생체권력’이나 ‘생명공학의 비윤리적 가능성’에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제인간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장기를 수확하는 작품 속 인간 사회가 바로 기술문명의 첨예한 발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하여 윤리적 반성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 오기도 했다. 이것은 천재적 작가의 치밀한 설계를 통해 제작된 작품에 대한 당연한 비평적 반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작품 속의 현실이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남은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소설 속의 사건들 역시 아직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확하거나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나 언제건 일어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감정이입형 비평들이 이루어지면서, 향후 과학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윤리적 견제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은유나 우화적 비유를 통해서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비주류 세력에 대한 주류 세력의 배려를 촉구하고 강조하는 측면으로 비평되어왔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유대인 철학자인 부버의 ‘대화주의적’ 철학과 미학에 기대어,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숙독한다면, 작가의 의도나 전반적인 작품의 흐름, 또는 세속적인 비평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는바, 그것은 바로 외형적으로나마 복제인간들의 삶의 궤적 속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은 존재를 기율여야만 말할 수 있는 ‘나-너’라는 근원어를 바탕으로 ‘너’로서의 텍스트와의 성실한 만남을 통하여 독자들은 자신들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인간으로 여김을 받지 못하는 복제인간의 모습 속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된다. 또한 ‘나-그것’의 관계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하나의 도구로 여겨지고 사용되고 있지만, 인간 사회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완료’하는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애도하고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 대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제인간의 삶의 궤적 속에서 독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시 118:22)라는 말씀 속에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이후 부활과 영광의 이미지를 발견함으로써, ‘나’와 ‘너’ 사이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는 부버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제인간 사이의 위와 같은 다양한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작품 속의 복제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보다는 마치 「레위기」의 희생양처럼, ‘나’의 존재를 위하여 희생된 또 하나의 ‘나,’ 즉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도 빛도 없는 타자들’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품 속에서 ‘근원자’를 위해서 희생되는 복제인간들의 이미지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목상하며,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 준 우리 주위의 많은 ‘너’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내 이웃으로 환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동력으로 해석됨으로써,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환대의 근원이 ‘나’가 아닌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남주 역 (2021). *나의 20세기 저녁과 작은 전환점들*, Ishiguro, K. (2017).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서울: 민음사.
- [Kim, N. J. (2021).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Seoul: Minumsa. Trans. Ishiguro, K. (2017). *My Twentieth Century Evening and Other Small Breakthroughs*. New York: Random House]
- 박경원 (2018). 생명정치와 국가권력: 이창래의 『만조의 바다위에서』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Vol. 71, 27-49.
- [Park, K. W. (2018). Bio-Politics and State Power in Chang-rae Lee's *On Such a Full Sea* and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1, 27-49.]
- 성서원 편집부 (2012). *관주 메모성경*. 개역개정. 서울: 성서원.
- [Seonseowon Editing Dept. (2012). *The Memo Bible, New Revision*. Seoul: Seongseowon.]
- 양종근 (2020). 복제인간과 자아정체성: 『나를 보내지 마』와 『오레오레』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Vol. 91, 191-222.
- [Yang, J. K. (2020). Human Clone and Self-Identity. *Journal of the Humanities*, 91, 191-222.]
- 이복기 (2019).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신이나 알겠지’: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이야기. *영어영문학연구*, Vol. 45. 1, 149-65.
- [Lee, B. K. (2019). ‘God Knows How These Things Work’: Stories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 1, 149-165.]
- 조성란 (2020).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나는 상실과 기억과 애도로서의 스토리텔링. *비교문화연구*, Vol. 58, 129-54.
- [Cho, S. R. (2020). Storytelling of Loss, Mourning, and Memory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Studies in Comparative Culture* 58, 129-54.]
- Bates, K. G. (2005). Interview with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Brian, W. S. & Cynthia, F. W. (Eds.).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99-203.
- Baucham, V. J. (2007). Truth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in Piper, J. & Justin, T. (Eds.). (2007).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51-68.
- Benjamin, W. (1968).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Trans. Harry Zohn. New York:

- Schocken Books.
- Britzman, D. P. (2006). On Being A Slow Reader: Psychoanalytic Reading Problems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Changing English: Studies in Culture and Education* 13.3 307-318.
- Buber, M. (1996). *I and Thou*.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A Touchstone Book.
- Buber, M. (2002). *Between Man and Man*. London: Routledge.
- Currie, M. (2009). Controlling Time: *Never Let Me Go*. *Kazuo Ishiguro: Contemporary Critical Perspectives*. Sean, M. & Sebastian, G. (Eds.). London: Continuum, 91-103.
- Freeman, J. (2005). *Never Let Me Go: A Profile of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Shaffer, B. W. & Cynthia, F. W. (Eds.). Mississippi UP, 2008, p. 194-98.
- Harrison, M. J. (2005). "Clone Alone." *The Guardian* 26 Feb.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05/feb/26/bookerprize2005.bookerprize,2022.07.18>)
- Jaggi, M. (1995). Kazuo Ishiguro with Maya Jaggi.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Ed. Shaffer, B. W. & Cynthia, F. W.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110-119.
- Kepnes, S. (1992). *The Text as Thou: Martin Buber's Dialogical Hermeneutics and Narrative The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Lawler-R., Kathleen, A. & Jeff, E. (2009), The Role of Religious Activity and Spirituality i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 43-51.
- Levy, T. (2011). Human Rights Storytelling and Trauma Narrative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Journal of Human Rights*, 1-16.
- Robinson, B. (2007). Cruelty Is Bad: Banality and Proximity in *Never Let Me Go*. *Novel*. 40. 3, 289-302.
- Shaffer, B. W. & Cynthia, F. W. (2008). (Eds.).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 Teo, Y. (2014). *Kazuo Ishiguro and Memory*. Palgrave Macmillan.
- Tsao, T. (2012). The Tyranny of Purpose: Religion and Biotechnology in Ishiguro's *Never Let Me Go*. *Literature & Theology*, 26(2), 214-232.
-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What on Earth am I Here For?* Grand Rapids: Zondervan.
- Wong, C. F. & Grace, C. (2006). A Conversation about Life and Art with Kazuo Ishiguro *Conversations with Kazuo Ishiguro: Literary Conversations Series*. (Eds.). Shaffer, B. W. & Cynthia, F. W.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4-226.

타임. 2010. 1.8일자. “All-Time 100 Novels.”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검색일 2022.09.27)

[“All-Time 100 Novels.” Time(2010.1.8.). Retrieved from <https://entertainment.time.com/2005/10/16/all-time-100-novels/slide/never-let-me-go-2005-by-kazuo-ishiguro/>. (2022.09.27.)]

IMDB. “나를 보내지 마”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검색일 2022.09.25.)

[*Never Let Me Go*. IMDB. <https://www.imdb.com/title/tt1334260/> (2022.09.25.)]

TBS(일본). “나를 보내지 마”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검색일 2022.10.3)

[私を離さないで. TBS(Japan). <http://www.tbs.co.jp/never-let-me-go/story/> (2022.10.3.)]

한겨레. 2022. 6. 8일자. “자기 몸 세포로 3D프린팅한 귀 이식 성공”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 (검색일 2022.10.3.)

[“Success in Transplantation of 3D Printed Ear from the Body Cell”, *Hangyoreh*.(2022.6.8.)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6120.html(2022.10.3.)]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

The Image of Christ in Kazuo Ishiguro's *Never Let Me Go*

김철수 (조선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는 마르틴 부버의 대화철학에 비추어 이시구로 가즈오의 『나를 보내지 마』를 다시 읽고, 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버에 따르면 이 세상의 진정한 삶은 ‘은혜’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는 만남이며, 그 만남은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부버에게 예술은 단순히 예술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술가와 대상 사이의 ‘은 존재를 기울인’ 만남이다. 이와 같은 그의 철학에 비추어 문학작품을 해석하려면 새롭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실증주의나 형식주의 또는 사회역사적 비평과 같은 ‘나-그것’의 태도로 텍스트를 접하는 대신, 부버를 따라 ‘나-너’의 태도로 텍스트에 귀를 기울이고, 독서 과정을 통해 ‘영원한 너’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요구된다. 성경의 진실에 반하여 인간 중심의 과학과 기술, 문학적 경향 및 철학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다양한 성찰을 열어주는 이시구로의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너’로서의 텍스트 해석의 적절한 대상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인간의 회로애락을 경험하다가 신체의 장기를 기증한 후 그들의 삶을 마감하는 복제인간 친구들의 삶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복제인간 화자의 내러티브와의 대화를 통해 독자는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치명적인 고난을 견디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미지를 읽어내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타자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가즈오 이시구로, 『나를 보내지 마』, 마르틴 부버, 『너로서의 텍스트』, 그리스도의 이미지